

투데이

“박람회장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남도·국회 국토해양위 사후활용 논의
“남해안 발전 아우르는 정부 지원 필요”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장 일대를 관광특구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강동석 조직위원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에는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방안은 남해안 전체의 발전을 이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사후활용의 핵심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성장동력 확보에 있다며 박람회장 일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지역민의 여론과 전남도 등 관계 기관들의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 명실공히 여수가 남해안 선밸트의 중심축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제는 사후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개장 후 박람회장 시설들이 건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층의 여론 등을 수렴해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후활용의 핵심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성장동력 확보에 있다며 박람회장 일

대를 관광특구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가 쉽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에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과 함께 입장객 모객 방안이 논의됐다.

실무위원회는 12월까지 사후활용 주체를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이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주제관은 해양과학관, 엑스포홀은 컨벤션홀 등을 이용하는 기존 시설물의 활용방안도 재확인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박람회 찾은 국토해양위

여수박람회 폐막을 2주 앞둔 30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강석호, 심재철, 오병윤, 신기남, 박수현 등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디지털갤러리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전통시장 공기질
대형마트보다 쾌적

전남지역 전통시장의 공기질이 대형마트에 비해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6개월동안 도내 전통시장 9곳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폭발하이드·총부유세균 등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공기질이 마트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시장은 평균 미세먼지 44.2㎍/m³, 이산화탄소 478.0ppm, 일산화탄소 0.1ppm, 대형마트는 미세먼지 61.3㎍/m³, 이산화탄소 668.6ppm, 일산화탄소 0.1ppm으로 측정됐다. 모두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150㎍/m³, 1000ppm, 10ppm)보다는 낮은 가운데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장필수기자 bungy@

하루 27만명 신기록…관람객 불편도

폐막 2주를 남긴 여수박람회에 막바지 관람객이 몰리면서 29일 하루 27만여명이 입장,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여수박람회조직위는 이날 입장객이 27만 2527명으로 28일 15만 5304명의 기록을 하루만에 경신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람객의 폭발적 증가는 여수시민 10만여명이 대거 입장한 데 따른 것

으로 조직위는 보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박람회 준비 협조 등에 고마움의 표시로 가구당 2장씩 무료 초청권을 배부했다.

이 초청권은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휴가와 방학 이용한 관람객까지 몰리면 이 기간 20만명 이상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정 관람 인원을 크게 넘기면서 관람객의 불편도 커지고 있

다. 박람회장으로 가는 여수시내 주요 도로는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조직위는 대규모 인파가 몰림에 따라 안전하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과 여수시 등과 함께 안전 및 교통 대책 등을 협의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박람회, ‘해양’은 없고 흥행몰이만”

주강현 교수 “재평가해야”

“여수엑스포는 박람회 역사상 21세기에 첫 번째로 열리는 해양박람회입니다. 그럼에도 주제인 해양이 미흡하게 인식되고 흥행과 놀이가 오히려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오랜 공력을 들여 박람회를 유치했으며 유치를 주도한 해양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재평가해야 할 단계입니다.”

해양문화학자로 변신한 민속학자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일부묘연하게 개괄한 ‘여수엑스포 오션엑스플로지’를 펴냈다.

책 제작인 ‘오션엑스플로지’(Ocean Expology)는 주 교수가 만들어낸 신조어. 주 교수는 여수엑스포의 개관에서부터 비전과 목표, 전략, 각 전시

관과 국제관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여수엑스포를 박람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주 교수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연 예술 기획은 필수적이지만 해양엑스포의 주목적은 아니다”면서 “해양엑스포의 본질은 당연히 해양 그 자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관람객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나 숫자에 연연해 바다 중심의 사고를 망각했다면 그건 해양엑스포가 아니죠. 이번 박람회는 디자인 피로감이 만연합니다.”

그는 또 “여수엑스포에서 제기된 글로벌 해양 환경의 변화와 해양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수선언”的 선언적 의미 뜻지 않게 엑스포에서 제기된 세계적인 문제의식을 엑스포 이후에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여수엑스포

폐루관이 살사·탱고와 함께 남미의 대표 춤사위로 펼쳐지는 전통무용 ‘마리네라’ 공연을 준비했다. 마리네라는 폐루의 민속무용으로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구애의 음악과 춤이다.

△국가의 날-페루

(엑스포홀·오전 10시)

△특별기획공연-난타

(천막극장·오후 2시)

△한국주간-증묘제례악

(엑스포홀·오후 6시)

△수상공연-뮤지컬 ‘비디의 소녀’

(해상무대 오후 7시 10분)

△팝페스티벌-장윤정·박현빈·

남진(특설무대·오후 8시)

△빅오쇼(해상무대·밤 8시50분)

△어제의 관람객 수=19만 0341명

(30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573만 3997명

반기문 총장 내달 박람회 폐막식 참석 姜시장 면담…U대회 남북단일팀 협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여수에서 반 총장을 만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함께 공동으로 UN인권

도시 추진 협조, 3D컨버팅업체인 광주 EMIG사에 UN 3D 홍보불 제작의

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람회 폐막식에 참석하는 반 총장과 개별 면담일정이 잡혀져 있으며, 이 자리에서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광주시 UN인권

도시 추진 협조, 3D컨버팅업체인 광주 EMIG사에 UN 3D 홍보불 제작의

뢰 등 3가지 사안을 반 총장에게 건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반 총장이 광주U

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UN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라고 측근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프리드 램프 UN사무총장스포츠별보좌관이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가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은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한 측에서도 알고 있다”며 “직접 한 시기로 되면 직접 접촉하는 방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3D컨버팅 한미합작 투자사업 지속…인내 필요”

강시장 유럽투자유치 보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30일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 투자사업’과 관련, “부실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인내할 때”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유럽 투자유치 실적 보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소 어렵고 답답하지만, 지금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3D컨버팅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민선5기에는 문화·예술로 돈을 벌어보자는 목표를 세웠으며, 검토결과 2D를 3D로 변환하는 사업이 가장 유망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은 언제나 어렵고, 또 실패도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2AM사를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광주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한미합작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됐으며 관련 법인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또 미국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구했다.

한편, 강 시장은 5·18 민주·평화·녹색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선5기에는 문화·예술로 돈을 벌어보자는 목표를 세웠으며, 검토결과 2D를 3D로 변환하는 사업이 가장 유망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맥1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 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특급반) 도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중급반)	월, 목 아간반: 2012. 9. 3.(월) 19:00~(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중급반) 도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급계수과정 이수시 종장 영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협자교육 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증 드립니다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 학교교과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특기회 부여)	·12급계수과정 이수시 종장 영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협자교육 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증 드립니다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 학교교과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